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정기예금 1년 5.11%(복리)

동양저축은행 226-0180

단기 4344년 (음력 1월 22일)

자영업자 가파른 몰락

광주 10개월새 무려 2만명 줄어...서민 벼랑끝 내몰려

전남은 3년간 3만8000명 감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의 몰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 등 산업계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관하면서 관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자영업 기반마저 무너져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3일 호남지역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월 호남권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는 광주 13만2000명, 전남 29만5000명 등 모두 42만7000명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 광주 5000명, 전남 3만8000명 등 4만

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7년 말 광주지역 자영업자는 13만8000명, 전남은 33만명 등 46만8000명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47만4000명(광주 14만명, 전남 33만4000명)에 달했다가 2009년 45만6000명(광주 14만1000명, 전남 31만5000명), 지난해 말 43만1000명(광주 13만4000명, 전남 29만7000명)으로 줄어 들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감소세가 가파르게 되면서 최근 1년 새 3만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3월 15만2000명에 달하던 자영업자가 10개월만에 13만2000명으로 2만명이나 줄어 들었다. 전남은 2009년 이후 해마다 2만명(2009년 1만9000명, 2010년 1만8000명)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지난 2008년 이후 광주·전남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건설업과 조선업이 붕괴하고, IT 등 벤처기업이 사라지면서 '네티아부대'가 동네식당·빵집·슈퍼마켓 같은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서면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불어닥치면서, 대기업의 분야별 사업영역 확장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동네슈퍼와 구멍가게를 위

협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나선데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동네상권을 점수하면서 자급력이 허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됐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 등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었다"며 "이들을 살리지 못하면 밀바다 내수경기도 살아나지 못할 뿐 아니라 서민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자영업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기업의 과욕을 법적·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봄기운에 늘어지게 하품하는 호랑이

날 최고기온 15도를 기록하며 전형적인 봄날씨를 보인 23일, 광주시 북구 생운동 우치동물원의 호랑이들이 봄기운에 취한 듯 하품을 하고 있다. 지난달 8일 구제역 및 A(조류독감)의 피해를 막고자 임시휴장했던 우치동물원은 전염병이 진정국면을 보이자 24일부터 다시 개장해 관람객들을 맞을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

작년 출생아 수 3년만에 증가 합계출산율 1.54명 전국 최고

전남지역에서 한동안 뜸해졌던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가 3년만에 증가한 것으로, 이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내놓은 '201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 출생아 수는 1만67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00명(4.4%)이 늘어난 수치다.

이같은 증가세는 '쌍춘년'과 '황금돼지해' 영향으로 출생아가 증가했

던 지난 2007년 이후 3년 만이다.

전남 출생아 수는 지난 2006년 1만5800명에서 2007년 1만77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인 뒤 2008년 1만6400명, 2009년 1만600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반전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만500건으로, 전년 대비 400건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아울러 신생아들에 대한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것도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2009년 1.45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전남도는 특히 출산율의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동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자 수도 지난해 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00명 늘었

고 고령층이 많은 탓에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사망률도 8.4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6만9900명으로 전년(44만4800명)보다 2만5100명 증가했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22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증가했다. 또 지난해 사망자는 25만5100명으로 전년보다 8200명 늘어 지난 199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UN, 여수박람회 참가 확정

참가국 85개국으로 늘어

유엔(UN)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가 확정됐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3일 유엔이 반기문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보내 공식 참가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여수박람회 조직위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5개 국제 기구

중 하나로, 참가 의사를 통보한 데 이어 박람회 참가 주관기구를 정하고 유엔전시관 감독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유엔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PEMSEA(동아시아 해양환경 관리협력기구)·CBD(생물다양성협약기구) 등 5개 국제기구의 참가가 확정됐다.

박람회조직위는 또 핵심 국제기구

인 유엔의 공식 참여로 박람회 전시 수준의 향상 뿐만 아니라 여지껏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국가들의 참가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람회 조직위는 이날 박람회

회 유치대상국가 100개국 중 85개국(유럽 21개국·미주 14개국·아시아 25개국·아프리카 18개국·중동 7개국)이 공식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대학원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초중고 수학 서술형 평가 확대 고교 수험시험 전자계산기 허용 검토

앞으로 초중고 수학 과목에서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 내용은 줄어드는 반면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이 늘어나며 수준별 교육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학 시험도 문제 풀이나 계산 위주보다는 풀이 과정을 볼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비중이 커지고 고교 수학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방과후학교에는 외부의 우수 강사와 민간기관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며 특히 영어학습 수요를 위해 EBS영어교육채널(EBSe)을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용 교재 및 방송프로그램, 방학용 교재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성균관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을 처음 공개하고 교원·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교사,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시안은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학 교육을 수월하게 수학 시험도 문제 풀이나 계산 위주보다는 풀이 과정을 볼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비중이 커지고 고교 수학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방과후학교에는 외부의 우수 강

포함됐다. 초중등 수학 교과를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입식·단순암기식 내용을 20% 줄이며 실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한다.

내신 평가방식도 문제 풀이와 계산 위주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바꾸고 서술형 평가를 늘리며 고등학교 수학 평가에서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 /연병수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고등법원장을 끝으로 3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관으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 주요 학력 및 경력 ◆
- 광주고(483), 서울대 법학과(73학번)
- 전남대학교(법학석사)
- 제19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9기
-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 광주·청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주·전주·광주 지방법원장
- 광주고등법원장 퇴임(2011. 2. 16)

변호사 정갑주 올림

- 업무개시 : 2011. 2. 21.
- 대표전화 : (062)234-0030, 팩스 : (062)226-0050
- 업무주소 : 광주 동구 지산동 709-25
- *개업소연은 생략합니다. (회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 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락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VIP정회원

- 입회금액 : 3억3000만원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일 1회 18홀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일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제공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해피정회원

- 입회금액 : 1억원
- 회원특전 :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 A형, B형, C형 중 선택(1)

A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B형 지정회원 미선택시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우대혜택
C형 무기명카드 1매 :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일 1회)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해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계약시 :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제공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주중 / 평일회원

- 입회금액 : 3300만원
-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 할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VIP회원 및 해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Fax. 061-330-5009